

2023년 29회대비

# 법무사 1차 시험 총평

헌법	권순현 박사	오전반
	이재영 법무사	저녁반
상법	이상수 박사	오전반
	하영태 박사	저녁반
민법	이준현 박사	오전반
	이혁준 교수	저녁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지후 교수	공통
민사집행법	김경태 법무사	오전반
	김지후 교수	저녁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김경중 법무사	공통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오전반
	김기찬 법무사	저녁반
공탁법	김경태 법무사	오전반
	이천교 법무사	저녁반



안녕하십니까?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23년 법무사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험 이후에 찾아오는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분석 및 대책을 쓰고자 합니다.

### (출제분석)

#### 1. 출제범위

이번 2023년 법무사 기출문제는 **헌법총론**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에서 1문, 직업공무원제도에서 1문으로 총 **2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권론**에서는 재판청구권 1문, 신체의 자유 1문, 직업의 자유 1문, 언론출판의 자유 1문, 재산권 1문, 평등권 1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문, 국가배상청구권 1문, 집회의 자유 1문, 공무담임권 1문, 헌법 제10조 문제 1문으로 총 **11문제**가 출제되었다.

**통치구조론**에서는 국회 2문, 정부 1문, 법원 1문,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3문으로 총 **7문제**가 출제되었다.

#### 2. 출제의 특징

전년도에 비하여 올해 **출제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박스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둘째**, 비교적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셋째**, 최근 3년간 판례가 다수 출제되었고, 다소 생소한 판례도 출제되었으며 최근주요판례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판례(변호사 광고 금지 판례)도 출제되었다.

**넷째**, 헌법조문을 알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나 단순한 부속법률을 물어보는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일단 문제의 지문이 길어지고 판례를 이용한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며 판단력을 요하는 지문이 많아서 체감하는 난이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3. 작년대비 난이도

2022년 시험에 비하여 2023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문제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 (대 책)

올해 헌법문제를 보면 지문이 길어졌고 판례를 활용한 지문이 많아서 정확한 판단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조문과 판례의 결론만으로 소홀하게 공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으로는 헌법과목을 기본서 중심으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판례는 결론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주요 판례는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헌법판례선’ 같은 교재를 이용하여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것은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시험의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법학원에서 공부한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올해의 법무사 헌법 문제는 과거의 문제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하게 느꼈을 정도로 과거보다 지문이 길어졌다는 것이며, 둘째는 어려운 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고, 쉬운 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문의 길이에 특히 취약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매우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지문을 쳐다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답이 명확한 문제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역시나 시험장에서의 체감난이도와 문제집으로 접할 때의 난이도가 크게 차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보다 2문제 정도 난이도가 상승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지문이 길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박스형 문제가 없다는 점, 옳은 것을 묻는 문제는 없고 틀린 것만을 찾는 것으로 출제되었다는 점, 출원인 수가 늘었다는 점은 오히려 점수 상승요인이 되는 것이어서 경쟁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의 목표 점수는 15개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발표 날 때까지 커트라인에 대한 온갖 예상이 난무하는데 이와 관련한 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앞으로 합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범위	목 차	내 용	출제분야
총 론	헌법의 의의		
	제정/개정/변천		
	헌법의 보장		
	헌정사		
	국가 구성요소		
	기본원리		
	기본제도	정당법 공무담임권 지방의회의 권한	조문 판례 조문
기 본 권	총론	입법부작위	판례
	포괄적 기본권	평등원칙 인격권	판례 판례
	자유권	적법절차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대상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판례 판례 판례 판례 판례
	사회권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재심제도	판례 판례
	참정권		
	국민의 의무		
통 치 구 조	기본원리		
	국회	법률제정절차	조문
	대통령	사면권-국회동의 여부	조문
	정부		
	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조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조문 조문 판례

시험을 치룬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먼저,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출제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총칙에서 3문제, 상행위편에서 4문제, 회사편에서 16문제(총론 2문제, 합명회사와 유한회사 각 1문제, 주식회사의 주식 2문제, 기관 5문제, 재정 5문제), 보험편에서 5문제, 해상편과 어음수표에서 각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 출제경향은 역시 판례 위주의 지문으로 출제가 많았습니다. 총 150개 지문 중에서 조문 또는 조문해석지문이 34개 밖에 되지 않았고, 116개의 지문이 판례로 만들어졌습니다.
3. 판례의 내용들은 2022년 하반기 판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저의 [상법기본강의]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상법의 출제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총30개의 문제 중에서 2022년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가 약10문제, 나머지 20문제는 기존의 판례와 조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022년 시험과 대비되는 것은 판례 하나로 문제를 가급적 구성하지 않고, 2022년 판례와 기존의 판례를 혼합하였다는 것입니다.
2. 총30개의 문제 중에서 전혀 새로운 문제는 1문제(합명회사)정도에 불과했을 뿐이고, 전형적으로 출제되어지는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3. 총30개의 문제의 지문 중에서 약15개의 지문은 시험장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읽어내기에는 매우 가독성이 떨어지는 지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매년 법무사시험문제의 공통된 내용이며, 이러한 지문으로 인하여 답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은 1 - 2문제이었을 것입니다.
4. 문제의 난이도를 본다면 2022년 대법원판례를 잘 공부하고 시험을 본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을 때 (상)에 해당하는 것은 5개 정도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중)의 난이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 (하)의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분석에 따라 22년 대비 난이도를 추측한다면 크게 낮거나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8과목의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으로써, 깊이 있게 교재를 정독하지 못하고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여겼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모의고사 문제와 자료를 통해 제공된 2022년 판례를 꼼꼼히 본 분들은 조금 수월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2024년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법전이나 기출문제집 등을 보더라도 기본서를 최소 3회독은 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험을 치룬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빌고, 2024년을 대비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I. 인사말

안녕하세요. 상법전임 하영태입니다.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법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강사의 주관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때 고려하기 바랍니다.

## II. 상법 기출 총평

## 1. 난이도 및 출제경향

- ◆ 2023년(29회) 상법문제는 2022년(28회)에 비교하면 난이도는 유사하지만, **보험법에서 익숙하지 않는 지문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답 지문은 평소 강조하던 내용에서 출제되어 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26문제는 무난히 풀었으리라 판단된다.** 문제의 내용도 그동안 기출 되었던 지문(판례+조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최근 판례(필자 제공)에서 모두 출제(정답은 아니지만 지문으로 구성됨) 되었다. **2~3개의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따라서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의 경우를 전제하여 작년과 비교해보면 상법 점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조문과 기출지문을 잘 분석하고 학습하였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속칭 상법은 효자 과목이 되리라 생각된다.
- ◆ 지금까지의 상법문제의 출제분위기는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의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법무사 합격 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2. 출제유형 및 범위

- ◆ 2023년(29회)의 문제출제 유형은 그전 시험과 유사하게 조문문제, 판례문제, 조문판례혼합문제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이 없이 평소출제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 출제의 범위는 상법 전반에 대하여 골고루 출제되고 있고, 매년 문제의 수는 주제별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아래에 구체적인 출제문제의 수를 도표로 표시하였다.
- ♣ 특이점: 29회 시험의 경우 예년에 비해 **보험법 문제가 많이 출제 되었다.**  
보험법을 평소 어렵게 생각하는 수험생은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수험전략

- ◆ 상법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적인 문제(학설논쟁)는 출제되지 않으며, 주요조문과 판례지문으로 구성되므로 수험전략은 명확하다.
- ◆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지문을 이해하고 익히면 고득점 할 수 있다. ◆기본서를 통한 상법상의 주요제도를 이해하고 기출지문으로 공부범위를 확정된 후 반복학습과 암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 ◆ 학원 등(강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판례지문을 수집하여 추가학습 한다면 난이도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V. 별표: 상법기출 분석표

출제파트 (문제수)	출제내용	
상총(4)	-상인과 상행위 -지배인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업등기의 효력	
상행위 (3)	-상인간 매매에 관한 상법상 특칙 -대리상 -운송주선업	
회사(16)	-회사법 통칙(법인격 부인 등)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주평등의 원칙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주주총회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그 직무대행자 -주식회사의 감사 -신주발행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전환사채 -합병	
보험(5)	-보험통칙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권 등 -손해보험의 통칙 -중복보험 -보증보험	
해상(1)	-해상운송인	
어음수표(1)	-어음법 종합문제	
합계	30문제	

2023년 9월 2일 시행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해 3~4개 정도는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거의 출제하지 않았던 박스형식의 문제도 5문항이나 출제가 되었고, 선지를 여러 부분에서 발췌해서 만든 이른바 종합문제가 6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 이후 최신판례내용이 16개 지문이나 출제되었다는 점을 볼 때, 난이도를 높이려는 출제자의 의도를 분명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다.

마지막 동형모의고사에서 최신판례를 담은 문제, 박스형식의 문제 등을 많이 연습을 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민법총칙 6문항, 물권법 9문항, 채권법 15문항, 친족상속법 4문항, 종합문제 6문항이 출제되었으며, 200개 선지 중 조문을 묻는 선지가 8개, 판례를 묻는 선지가 192개가 출제되었다.

수험생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I.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혁준입니다.

먼저, 힘든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낸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민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II. 총 평

### 1. 개괄적 평가

- ① 우선 금년 민법 시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및 강의시간에 누차 강조하고 짚어드렸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간혹 지엽적이고 생소한 판례도 나왔지만 사찰(寺刹)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답을 결정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즉 5가지 지문 중에서 정답지문을 명확히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가 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신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마지막 최종 마무리 정리 시간에 최신판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를 했더라면 반가운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준비를 다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낮은 지문들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문이 매우 길어서 시간안배에 실수할 수 있었는데, 이미 지문이 길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문을 포인트별 패턴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는 점, Box형 문제에서 정답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른바 소거법)을 연습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이 없었다면 매우 난감했었을 것임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 ② 금년 시험은 Box형 문제가 5문제(선별형과 O·X 조합형)나 출제되어 역대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였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출제될 것은 이미 예상하였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고, 또한 전범위 모의고사에도 출제하여 연습시킨 바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조금은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③ 또한 금년 시험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적인 내용의 지문이 역대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체감 면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략 1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답을 결정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 ④ 위와 같은 점과 실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 및 시험장에서는 항상 실수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대처했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민법만 볼 때 작년에는 6문제 정도 틀리는 것이 합격선이라면, 금년에는 40문제 중 8문제 정도 틀리는 것으로 합격선이 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2. 개별적 평가 및 예상

#### (1) 주제별 전체적 평가

- ① 금년 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A급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되, 조문의 비중은 더더욱 낮아지고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판례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A급 이상의 판례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최신판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한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4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 ②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제도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각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된 문제가 대략 5문제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도 채권·물권·가족법 모든 영역을 지문으로 구성한 문제는 1문제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난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변별력은 크게 높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 ③ 다만 소송법적 사고와 집행법적 사고 등이 있어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10개 정도 출제되어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답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2) 영역별 평가**

① 작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형·사례형
6문제	19문제	10문제	5문제	3문제

② 이와 달리 금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종합/Box형
7문제	17문제	11문제	4문제	1문제/5문제

작년에 비해 Box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영역별로는 골고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제 내지 지문의 구성면에서의 평가**

**1) 조문과 판례의 비중 등**

조문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지고, 판례가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200개 지문 중 대략 4개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문의 길이는 길었으나 이는 매년 같은 현상이었고, 이런 현상은 이미 고착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습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훈련이 되어야 했습니다. 평소 판결요지를 볼 때 일단 판례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을 살피면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판례의 키워드나 핵심 문구 등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일정한 패턴으로 지문이 읽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2) 영역별 주제(쟁점)의 구성 - 문제나 지문으로 보이는 중요주제(쟁점)별 개괄적 제시**

민 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li> <li>▶ 비법인 사단과 교회</li> <l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li> <li>▶ 임의대리</li> <li>▶ 부관</li> <li>▶ 소멸시효</li> <li>▶ 제척기간</li> </ul>
채권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상계·손해배상</li> <li>▶ 채권자취소권</li> <li>▶ 채권양도</li> <li>▶ 변제</li> <li>▶ 상계</li> <li>▶ 경계, 공탁</li> </ul>
채권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시이행 항변권</li> <li>▶ 위험부담</li> <li>▶ 제3자를 위한 계약</li> <li>▶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과 - 제535조 책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상 임대차와 상임법</li> <li>▶ 도급</li> <li>▶ 위임</li> <li>▶ 준소비대차</li> <li>▶ 불법행위</li> </ul>
물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 일반 - 중복등기, 불법말소, 등기의 추정력 등</li> <li>▶ 물권적 청구권, 말소등기청구</li> <li>▶ 점유</li> <li>▶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li> <li>▶ 점유취득시효</li> <li>▶ 부합</li> <li>▶ (준)합유</li> <l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li> <li>▶ 전세권</li> <li>▶ 유치권</li> <li>▶ 물상보증인</li> <li>▶ 저당권과 근저당권</li> </ul>
가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혼 및 사실혼관계</li> <li>▶ 친자관계</li> <li>▶ 후견</li> <li>▶ 상속순위와 상속재산분할</li> </ul>

이렇듯 각 영역별 중요한 주제나 쟁점에 대해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거의 매년 출제되었던 또는 중요한 주제인, 예컨대 채권자대위권이나 채무불이행의 성립 및 효과로서의 해제, 부당이득, 공유, 명의신탁 등이 단독·고유의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Box형·사례형 문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는 앞으로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Ⅲ. 글을 마무리하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의 당락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험생 모두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므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알차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시험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이든 예상되는 컷라인 근처라서 매우 불안하든, 발표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내년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의 여신을 붙잡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여신의 뒷모습만 보지 않기를 바라며, 긴 한숨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 헤쳐 나왔던 여러분이기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이 끝나서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 수험생 모든 분들께 심심(深深)한 위로(慰勞)와 격려(激勵)를 보냅니다.

◎ 최근 6년간 시험지 면수

	응시자 (출원자)	1차시험 합격선 (cut-line)	1교시 (헌·상, 민·가)	2교시 (집·비, 부·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2,244명 (3,704명)	58.5점	19.5 p.	20.5 p.	2 p.
2019년	2,488명 (4,135명)	60점	20.5 p.	21.5 p.	1.5 p.
2020년	2,501명 (4,413명)	65점	22.5 p.	22 p.	1.5 p.
2021년	3,010명 (4,910명)	62.5점	26 p.	22.5 p.	2 p.
2022년	3,148명 (5,647명)	60.5점	24 p.	23 p.	2 p.
2023년	명 (7,616명)	점	27.5 p.	23 p.	2 p.

◎ 2023년 출제 분석

1. 총 10문제 중 총칙에서 5문제, 신고각론에서 2문제, 국적의 득상 및 국제사건에서 2문제, 종합문제 1문제 각 출제되었습니다.

2. 법조문에서 40%정도 출제되었는데, 지엽적인 법조문이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으며, 미기출 예규에서도 다수의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가. 법조문에서 정답지문으로 출제된 문제 - 총 6문제

1책형 41번(규칙 66조), 43번(규칙 36의2, 예규 제570조), 45번(규칙 65조), 46번(법 9조2항), 47번(법 85조, 법 58조, 법 46조, 법 78조), 50번(법 42조, 법 104조, 법 109조)

나. 예규·판례에서 정답지문으로 출제된 문제 - 총 4문제

1책형 42번(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44번(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48번(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9번(대판 1993.7.27. 91므306).

4. 기출지문으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 - 6문제

가. 기본문제 - 5문제

기출지문으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는 1책형 42번, 43번, 46번, 47번, 48번, 50번 등 총 6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최소 5문제 정도는 맞혀야 할 '기본문제'에 해당합니다.

나. 까다로운 문제 - 4문제

1책형 41번, 44번, 45번, 49번 등 모두 4문제 정도는 미기출지문에서 출제되어 다소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 2023년 출제 총평

## 1. 문제 난이도와 지문의 구성

가. 문제 난이도(難易度)

- 1) 2021년 : 역대급 난이도를 보였던 2021 시험에서는 기출지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을 알면 풀 수 있는 '기본문제'가 4문제(40점) 정도, 아예 정답을 찾기 곤란한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6문제 정도 출제되어, 아주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 2) 작년 2022년 : 2022년 시험에서는 '기본문제'가 최소 5문제, '까다로운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되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 3) 이번 2023년 : '기본문제'가 최소 5문제, '까다로운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되어, 작년 2022년과 비슷하게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나. 지문의 구성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2023년 시험에서도 법조문에서 다수 출제되었고, 기출지문에서 6문제 출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박스형문제(47번, 50번)는 중요한 기본 조문에서 출제되었으므로 기본문제에 해당합니다.

## 2. 득점 예상

총 10문제 중 6문제 득점하였으면 합격권 점수이고, 7문제 이상 득점하였다면 합격자 평균 이상의 고득점입니다. '기본문제'가 5문제(50점) 출제되었으므로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6문제 정도 득점은 무난(無難)하였을 것입니다.

## 3. 소 결

가·등·법은 조문과 예규의 양은 많은데, 1년마다 10문제가 출제되어 기출문제도 많지 않으므로, 미기출의 영역이 너무 많으므로 계속하여 어렵게 출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법조문의 출제 비중이 높으니, 먼저 양이 적은 법조문을 공부한 뒤에 기출 예규를 추가하여 공부하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 2023년 합격선(cut-line) 관련 예측 (변동 없음)

이번 2023년은 작년 2022년과 비슷하게 출제되었으므로, 예상 cut-line(합격선)과 관련하여 변동 없음으로 예상합니다.

◎ 맺으며

역경(逆境)속에서 홀로 고난(苦難)한 수험생활을 묵묵(默默)히 견뎌내고 끝까지 완주(完走)한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勞苦)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 최근 6년간 기출문제 분석

목 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제1편 총 설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제2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제3장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장 등록사무의 감독							
	제5장 등록부.폐쇄등록부	1	2				1	
	제6장 각종 부책과 서류(특종신고 등)				1	1		
	제7장 등록부등의 공개		1	1	1	2	1	
제2편 등록사무 처리절차	제 1 장 총칙	제2절 신고	2	1			1	
		제3절 직권 정정.기록			1		1	
		제4절 접수 심사 등		1	1			
		제5절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 보완						1
		제6절 등록부의 기록.정정, 폐쇄					1	1
	제2장 출생신고	1		1	1	1	1	
	제3장 인지신고					1	1	
	제4장 입양신고			1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1						
	제6장 혼인신고				1			
	제7장 이혼신고	1		1				
	제8장 친권에 관한 신고				1			
	제9장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제10장 사망신고	1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제12장 성.본변경신고								
제13장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통보)				1	1	1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1장 국제등록사무 총론		1		1		1	
	제2장 국제등록사무 각론	1	1					
제4편 등록부의 정정		1	1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등록부창설 등)	2		1	2	1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제7편 벌칙, 과태료				1				
총 합 문 제		2	2		1	1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에서 전년도에는 출제가 되었던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그 출제가 없었고, 대신 전년도에는 출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에서 출제가 된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같다.

총칙, 부동산, 채권, 보전처분의 분야별 출제비중에서는 채권부분에 대한 출제가 줄어든 대신 보전처분과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에서 출제가 늘어났고, 특히 부동산부분에서 배당절차에 관한 출제가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전년도에는 없었던 Box형 문제도 출제되었다.

최근의 판례가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검토했었던 것이어서 그렇게 낯설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여겨지고, 기존의 문제에서 보지 못했던 생소한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지만,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

어떠하든 위와 같은 생소한 지문으로 인하여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체감 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에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전년도 보다는 득점이 조금 낮아졌으리라 여겨진다.

구분	上	中	下
2022	7	24	4
2023	11	20	4
가감수	- 4		0
전체영향	- 4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후입니다.

2023년 제1차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에 만족하는 수험생도 있겠으나, 노력에 비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속상하고 아쉬움이 많은 수험생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유난히 어렵게 출제된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등) 때문에 합격선(cut-line) 발표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수험생들에게 심심(深深)한 위로(慰勞)와 격려(激勵)를 보냅니다.

◎ 최근 6년간 시험지 면수

	응시자 (출원자)	1차시험 합격선 (cut-line)	1교시 (헌·상, 민·가)	2교시 (집·비, 부·공)	민사집행법
2018년	2,244명 (3,704명)	58.5점	19.5 p.	20.5 p.	8 p.
2019년	2,488명 (4,135명)	60점	20.5 p.	21.5 p.	9 p.
2020년	2,501명 (4,413명)	65점	22.5 p.	22 p.	8.5 p.
2021년	3,010명 (4,910명)	62.5점	26 p.	22.5 p.	10 p.
2022년	3,148명 (5,647명)	60.5점	24 p.	23 p.	9.5 p.
2023년	명 (7,616명)	점	27.5 p.	23 p.	10 p.

◎ 2023년 출제 분석

1. 총론 6문제, 재산명시절차등 1, 부동산경매 17,채권집행 3, 비금전집행 2, 보전처분 6문제 각 출제되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론	2	8	6	5	6	6
재산명시절차 등	1	0	0	1	1	1
부동산경매	22	14	20	17	15	17
유체동산	1	1	0	0	1	0
채권집행	4	5	3	7	7	3
보전처분	5	7	6	5	5	6
기타(강제관리, 선박등, 비금전집행)	0	0	0	0	0	2
합	35문제	35문제	35문제	35문제	35문제	35문제

2. 총 175개 지문 중 미기출지문이 2018년 50 여 개, 2019년 50 여 개, 2020년 50 여 개, 2021년 55 여 개, 2022년 60 여 개 출제되었는데, 금년 2023년 시험에서는 75 여 개 출제되었습니다(약 43% 미기출지문 출제).

3. 총 35문제 중 4문제(1책형 2번, 10번, 16번, 29번)가 법조문이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었으며,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 4월 법원승진시험(사무관 20문) 중에서 1문제(1책형 21번)가 이번 법무사 1차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고, 2023년 7월 객관식강의 및 8월 동형모의고사강의에서 강의자료로 제공된 최신판례 중 A급으로 강조한 판례에서 2문제(1책형 32번 문제 - (24)판례, 34번 문제 - (14)판례)가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2023년 출제 총평

**1. 시험지 면수**

2교시 시험지 면수는 23면, 민사집행법 10면으로 합격선(cur-line) 60.5점이었던 작년 2022년 시험과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2. 문제 난이도와 지문의 구성**

가. 문제 난이도(難易度)

- 1) 전까지 역대급 난이도로 불렸던 2021 시험에서는 기출지문으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기본문제’가 19문제(대략 54점)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반면 미기출 지엽적인 지문으로 구성되어 정답을 찾기 곤란한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6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 2) 작년 2022 시험에서는 ‘기본문제’가 대략 17문제(대략 48점),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5문제(1책형 1번, 20번, 25번, 28번, 31번) 출제되었습니다.
- 3) 이번 2023 시험에서는 기출지문을 정답하는 문제가 19문제 출제되었는데 그 중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기본문제’는 대략 16문제(1책형 - 2번, 3번, 4번, 5번, 8번, 12번, 13번, 16번, 17번, 21번, 24번, 25번, 27번, 28번, 30번, 33번),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대략 11문제(1책형 - 1번, 6번, 7번, 10번, 14번, 18번, 20번, 29번, 31번, 32번, 35번) 출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기본문제’가 1문제 줄었으며,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6문제 늘었습니다.

나. 지문의 구성

- 1) 지금껏 법무사 1차시험 중 어느 과목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미기출지문 폭탄으로(175개 지문 중 75여개 - 약 43% 미기출에서 출제),
- 2) ‘기본문제’의 정답 배려가 거의 없고, 지문 중간의 ‘일부 단어’를 틀리게 하여 정답지문으로 출제된 문제가 다수이며,
- 3) 정답을 찾기 어려운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역대급으로 많이 출제되었는데, 이전에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던 2021년 시험에 비교하여 볼 때에도 이번 2023년 시험은 그 보다도 더 훨씬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 3. 득점 예상

총 35문제 중 19문제(54점) 득점하였으면 합격권 점수이고, 22문제(63점) 이상 득점하였다면 합격자 평균 이상의 고득점입니다. 기출지문을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19문제 출제되었고 이 중 '기본문제'가 16문제(46점) 정도 출제되었으므로 조문·판례와 기출지문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19문제 득점은 무난(無難)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시험의 경우 최신판례에서 2문제,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이를 충실히 한 수험생들은 3문제를 추가로 더 쉽게 득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4. 소 결

정해진 시간 내에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4과목을 풀어야 하고, 『민사집행법』은 태생적으로 어려운 과목이면서 문제 수도 많아 수험생들의 고충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특히 이번 민사집행법은 미기출지문에서 75여 개 출제되어 지금까지의 법무사 1차 시험 출제 중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도 역대급으로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미기출지문이 워낙 많이 포진되어 있고, 정답배려도 없어 기본문제도 훨씬 어렵게 풀었을 것이며, 정답을 찾기 어려운 이른바 킬러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되었고 상업등기법까지 어렵게 출제된 점을 감안하면 3과목에서 예상 밖 과락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 ◎ 2023년 합격선(cut-line) 민사집행법 예측 - 4문제 하락

이번 2023년 시험의 경우 민사집행법은 미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었고, 기본문제의 정답배려가 거의 없었고, 지문의 가운데 일부만 틀린 것으로 다수 출제되었으며,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10문제 이상 출제되어 시험장의 수험생 입장에서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2023년은 작년 2022년 대비 4문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는 5문제 이상 더 어렵었다고 할 것이나, 득점에 있어서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 ◎ 맺으며

역경속에서 홀로 힘들게 수험준비를 하여 응시(應試)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고(勞苦)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 ◎ 최근 6년간 기출문제 분석 - 뒷 면

◎ 최근 6년간 기출문제 분석

구 분		18	19	20	21	22	23	
제1편 총 칙	집행기관				1		1	
	즉시항고		1					
	집행이의	1				1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 특별항고			1				
	집행비용		1	1				
	집행 담보·보증·공탁							
제2편 강제집행								
(강제 집 행) 총 칙	집행당사자					1		
	집행권원		1		1	1		
	집행문		1	1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적극적 요건, 집행장 애)	1		1		1	1(회 파)	
	집행문구제절차		1				2	
	청구이의의 소		1	1	2	1		
	제3자이의의 소						1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2	1	1	1	1	
재산명시 절차 등	재산명시				1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1		
	재산조회							
부동산 강제경매	압 류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		1			1	2
		강제경매의 요건, 강제경매의 신청			1	1		
		강제경매개시결정(심리, 목적물 조사)	1					1
		기입등기촉탁, 강제경매개시결정 송달						
		압류의 효력					1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		1			1
		부동산 이중경매	1		1		1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1	1		1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 소						
	매각절차에서 당사자 승계				1	1		
	현 금 화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1		1	1		
		배당요구종기결정·공고·고지, 채권신고 최고		1	1			
		현황조사, 평가, 최저매각가격 결정		1			1	1
		매각물건명세서	1	1			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1		1	1		1
		개별매각, 일괄매각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매각 실시 절차			1	1		1
		공유자의 우선매수						
		새 매각						1
	부동산 강제경매	매각결정절차	2	1	1		1	
		매각대금의 지급	1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1	1		1	1	
		소유권의 취득	1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1			

배당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	1	1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채권자	1	1		1	1	
	주택·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		1			
	임금채권		2		1	1	2
	조세·공과금채권			1			
	가압류채권	1			2		
	배당표의 작성(배당순위, 구체적인 배당방법)			1			
	배당기일의 실시(배당이의)	1	1	1			1
	배당이의 소송	1		1			1
	배당의 실시		1		1		
	경매신청의 취하			1			
부동산경매 종합문제	3		1	1	2	3	
부동산 강제관리							
선박 등							
유체동산							
		1	1			1	
채권집행	집행의 대상(피압류적격)	1			1	1	1
	압류명령			1	2	1	
	추심명령	1	1				1
	전부명령	1	2		1	2	
	특별한 현금화방법						1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1	
	집행의 경합			1	1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배당절차		1			1	
	채권집행 종합문제	1	1	1	2	1	
비금전집행(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형식적경매)							
제4편 보전처분							
보전처분	보전소송의 관할	1		1			
	보전소송의 당사자	1					
	보전소송의 소송물		1	1	1	2	
	보전처분 신청, 심리와 재판		1	2	2	1	
	보전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2		1	1	2
	본집행으로의 이전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1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1		2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	1					
보전처분 종합문제	2	3				1	

##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상법등기 12문제, 비송사건절차 3문제로 예년 수준으로 출제 비중이 정상화되었다. 작년처럼 비송사건 절차법 문제가 과도히 많지 않아 출제 영역 부분에서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지문 길이는 2문제를 제외하고는 길지 않은 편이라 지문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는 시간 부담은 적었지만, 지문의 형식으로 볼 때 기본지문 보다는 한두번 더 생각해야 하는 지문 또는 일부 표현이 변경된 응용지문들의 비중이 예년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문제당 5개의 지문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들이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를 가늠해 보면 상급 4문제, 중상급 2문제, 중급 1문제, 중하급 4문제, 하급 4문제로 분석된다. 작년과 비교하여 상급과 하급의 문제수는 같았고, 중상급이나 중급 문제는 줄어들고 중하급 문제가 많아진 특징을 보인다. 예년에 비해서는 어려웠지만 작년 대비하여서는 조금 쉬웠다고 판단된다. 작년이 예년에 비해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쉬웠다는 것이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목을 정상적으로 준비한 수험생들이라면 7~8문제 정도는 기본점수로 가져갔을 것으로 예상되나, 난이도 상급 문제도 상당하여 12문제 이상을 맞춘 고득점자는 예년보다는 적고 작년과는 비슷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1.5문제 정도의 커트라인 상승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향후 학습방향

상법과 연계된 상법등기 부분, 특히 주식회사 부분을 주력으로 정리하는 것이 상법과 상법등기법을 고루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은 이제 기본 3문제 정도 이상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강의에서 요약·정리한 사항 정도까지는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비송재판 총론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그에 수반하여 개별사건의 특칙들을 강의에서 제시하는 두문자 중심으로 최대한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25회 (19년)	26회 (20년)	27회 (21년)	28회 (22년)	29회 (23년)	계
상업 등기	총론	3	3.5	3.5	3	2	15	
	상호	1				1	2	
	무능력자	1					1	
	지배인		1				1	
	합자조합					1	1	
	합명회사				1		1	
	합자회사						0	
	주식회사	3	5	7.5	4	6	25.5	
	유한회사	1		0.5			1.5	
	유한책임회사						0	
	외국회사		1				1	
	상업등기 종합문제, 기타(채무자회생법등)				1	1	2	4
비송 사건	총칙	2	1			1	4	
	민사 비송	법인에 관한 사건				0.5	1	1.5
		신탁에 관한 사건			1	1		2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0.5	0.5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0
		부부재산의 약정			1			1
		민사비송 종합문제				0.5		0.5
	상사 비송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3		1.5		5.5
		사채에 관한 사건	1				0.5	1.5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					1
		상사비송 종합문제				1.5		1.5
	법인등기	1	0.5				1.5	
	과태료 사건			0.5	1		1.5	
총계		15	15	15	15	15	75	



올해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1차시험 중 부동산등기법은 예년에 비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아래의 조건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문을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기본서와의 싱크로율은 96.6%이다) 전형적인 문제만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수험생 수준에서는 접하지 못한 불의타 지문이 없기 때문에 수험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법무사 1차 시험 접수인원이 2022년도의 5,647명에서 2023년도 7,616명으로 30%나 늘어난 것을 감안하고, 올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을 반영한다면 합격자는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평균 6개 정도 더 맞추어야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등기법이 합격자 커트라인에 미치는 상승효과는 3점 정도로 본다.** 서울법학원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모든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한다.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는 수험생은 요약서보다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을 위주로 출제경향을 살펴본다.

○ 평이함    ◐ 약간 어려움    ● 어려움

문제번호 (1책형)	출 제 경 향			난 이 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기본서(혹은 문제집) 수록여부	등기예규/선례 /판례	
1.		100%	○	
2.		100%	○	
3.	○	100%		
4.		100%	○	
5.		100%	○	
6.		100%	○	
7.	○	100%		
8.		100%	○	
9.		100%	○	◐
10.	○	100%		
11.		100%	○	
12.	○	100%		◐
13.				●
14.		100%	○	
15.		100%	○	
16.		100%	○	
17.		100%	○	
18.	○	100%		
19.		100%	○	
20.		100%	○	
21.		100%	○	
22.		100%	○	
23.	○	100%		
24.		100%	○	
25.		100%	○	◐
26.		100%	○	
27.		100%	○	●
28.		100%	○	
29.		100%	○	
30.		100%	○	
평균		96.6%		

##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먼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 년까지 한 길을 달려오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셨기를 바라며 2023년 부동산등기법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 II. 총평(제29회 시험의 특징)

### 1. 조문·예규·선례의 비중

- (1) 올해 시험을 분석한 결과 조문은 58지문, 예규는 52지문, 선례는 40지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비율로 계산하여 보면, 조문(39%), 예규(35%), 선례(26%)의 비율로 집계되었습니다(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조문의 출제 비중이 늘고, 예규·선례의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시험	출제 비중	2023년 시험
21 %	조문	39 %
51 %	예규	35 %
28 %	선례 (판례, 실무제요)	26 %
100 %	전체	100 %

- (2) 조문의 비중이 크게 출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조문은 많은 수험생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며 원론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물어보는 예규나 선례보다는 비교적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소한 기타 법령의 조문이 출제가 되어 수험생분들이 어렵게 느낀 문제들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정답지문의 유형으로는 조문 정답이 6문제(20%), 예규 정답이 12문제(40%), 선례 정답이 12문제(40%)가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의 기출지문으로 보았을 때에는 작년보다 조문의 비중은 많아졌으나 역시나 정답지문은 예규·선례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 2. 최신 예규·선례의 비중

- (1) 올해 시험은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최신 예규·선례의 비중이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선례나 등기실무의 내용들이 출제되었고, “물권변동의 시기와 관련하여 성질이 다른 하나는?”이라는 형식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부담 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올해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최신 예규·선례의 내용들은 내년에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 3. 총평

①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조문의 지문이 늘고, 예규·선례의 지문이 적게 출제된 점, ②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일반적인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점, ③ 짧은 지문이 많이 출제된 점, ④ 기존의 기출지문들이 많이 출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는 하락하였고, 23문제 이상을 득점(작년기준 +2)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Ⅲ. 맺음말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시며 더 높은 능선을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당락은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추스르시고 심기일전하시어 앞으로의 알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든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했던바와 같이 형사공탁에서 출제가 되었고, 공탁사항변경절차에서 출제가 안 된 것 외에는 공탁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총론,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의 신청절차, 지급절차, 소멸시효 등 각 분야별 출제의 비중도 전년도와 비슷하고,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관하여는 여전히 사례형으로 출제된 것 역시도 전년도와 유사하였다.

Box형 문제 수가 전년도보다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난이도는 전년도 보다 더 무난하고 평이하게 출제되어, 기본이론과 기출문제의 지문만 제대로 숙지라고 있었다면 별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에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전년도 보다 득점하기가 훨씬 수월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 분	上	中	下
2022	2	7	11
2023	3	10	7
가감수	- 1	+ 4	
전체 영향	+ 3		

금년 29회 공탁법은 작년 28회 공탁법에 비해 시험문제 분량(지분)은 적년과 동일하였으며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간단히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모두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지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는 2개만 출제되었으나 금년에는 5문제가 출제되어 수험 시간 상 체감 난이도는 쉬운 편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작년에 비해 매우 생소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지문은 다행히 적은 편이었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박스형 제외)도 작년처럼 2개만 출제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적을 수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출제지문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탁법을 정상적으로 준비를 했던 분들에게는 불의타 없이 무난할 수 있던 시험이었으나. 요약집이나 기출 위주로 비교적 가볍게 준비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의 상황은 같이 시험 보는 다른 과목의 영향, 시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하게 “출제 난이도” 측면에서만 검토해 보았을 때 이 번 공탁시험 문제는 작년 시험보다는 1문제 내지 2 문제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 합니다.